

+ 찬미 예수님

저스틴 신부님의 7월 25/26일 (토, 일) 미사 강론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과 저스틴 신부님의 강론이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마음과 영혼에 많은 은총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최고의 선물을 요구하는 방법(How to Ask for the Best Gifts)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1열왕 3:5). 하느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어하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제안입니다!

- 이 독서의 맥락을 파악해 봅시다: 밤 시간이니 안식일 여름의 우리와 마찬가지로 평온의 시간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막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서 그의 통치를 공고히 하였는데, 이제 하느님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속도를 늦추고 곰곰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우리의 욕망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번 여름에 내가 무언가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올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_____이다.

-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찾게 해 주려고 어떤 욕망을 심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 그분께서는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부여하셔서,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우정과 대화에 대한 감정적인 욕구; 그리고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 바치고자 하는 정신적인 욕구를 부여하셨습니다.

- 교리 문답서는 “인간은 하느님에 의해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마음에 세겨지고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을 그분 자신께 끌어들이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CCC 27). 이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망이고, 모든 욕망은 이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 이냐시오 로올라가 한번은 “ 선물을 주시는 그 분보다 받는 우리가 더 빨리 지칠 것이다” (Fr. Timothy Gallagher, *The Examen*, 58. For more information about desires, see pp. 35-38). 라고 썼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느님의 주시려는 욕망이 우리의 받는 능력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성 “이냐시오는 하느님을 주시는 것으로 체험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 ‘네’라고 말하는 순간, 그 분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끊임없이 선물로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의 길을 따르십시오.

첫째: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서는 당신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애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 앞에서

진실하고 의롭고 올곧은 마음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그에게
그토록 큰 자애를 내리시어, 오늘 이렇게 그의 왕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1열왕 3:6). 감사는 하느님이 누구이고 그분께서 이미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를 인식하게 합니다.

- 우리는 모두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나날을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리워하게 되고, 믿거나 말거나 간에, 우리가
깊이 바라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감사하게 되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변하고, 이제
우리는 부탁할 준비가 됩니다.
- 지금 당장,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것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것으로 움직이기 시작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은 간단합니다: 좋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릅니까. 하지만 더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알아 차리지
못하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중 하느님께서 많은 좋은
것들을 모아두었습니다!

둘째: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십시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시다만,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솔로몬은 겨우 23살이었다]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에 있습니다”(1열왕
3:7-8).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가
독신일 때, 우리의 가장 큰 욕구 중 하나는 우리의 천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사명은 무엇일까? 하지만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의 가장 큰 욕구 중 세가지는 지혜, 휴식, 인내심입니다.

- 우리의 상황을 아는 것의 일부는 우리의 불만과 접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깊이 괴롭히는 것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깊은 아픔이 있습니까? 치유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에 너무 좌절해서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거야!”라고 깨닫습니다.
 - 누군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 받았을 때 “나 단지 제대로 된 크리스마스를 원할 뿐이야”라고 대답하면, 거기에는 경청할 필요가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좋은 크리스마스는 평화의 시간, 가족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할 것입니다.
- 앞서 언급했듯이, 상담은 불만족스러운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내 블로그 (<https://rcav.org/personal-counseling>) 에 몇몇 천주교인 상담자들의 링크를 올려 놓을 것입니다.
- 마르크 성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장님이고 거지가 된 바르티매오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물으시자, 바르티매오는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마르10:51). 시력은 중요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시며 더 깊은 치유를 이끌어 내시려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의 믿음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치유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고통은 더 큰 치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영적인 치유로 이끄는 많은 기적들 또한 일으키십니다. 바르티매오는 시력을 받은 후 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구절에는 그가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10:52).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가장 좋은 선물을 청하십시오: 솔로몬은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1열왕 3:9). 그는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인 지혜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주차 공간이나 맑은 날씨와 같은 간단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지만,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없을 때 인내심을 갖는 것이나, 악천후에도 쾌활하게 행동하는 것과 같은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전형적으로 그들의 자녀의 경제적 미래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미래입니다.

- 하느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주목하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네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네 말대로 해 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네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1 열왕 3:10-12).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마태6:33).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왕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을 부여 받았습니다.

나는 언젠가 가톨릭 연사이자, 한 사람의 남편이고, 아버지인 마크 하트(Mark Hart)가 매일 아침, “내 인생에서, 내가 성인이 되는 것을 막는 그 어떤 것이나 누구라도 가져가십시오” (<http://thejustmeasure.ca/2020/05/03/three-clues-to-hear-jesus-voice/>). 라고 기도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겁나게 합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해치지 않으십니다. 이런 선물을 요구하면, 우리는 최고의 인생과 더 나은 우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냐시오 성인은 유명한 영적 운동(수련회 안내의 시간)을 통해 사람들을 안내했을 때, 퇴각자들에게 구체적인 은총을 요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분의 부르심에 귀머거리가 되지 않고, 그분의 가장 거룩한 의지를 성취할 준비가 되어 있고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내적 지식을 위해.. 내가 그분을 더욱 격렬하게 사랑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https://ejournals.bc.edu/index.php/jesuit/article/view/10443>).
- 솔로몬의 요청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이 사례들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COVID-19의 치료법을 위해, 혹은 새로운 직업이나 새 집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솔로몬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 해 보십시오: 그의 시대에는 더 많은 질병과 전염병, 기근이 있었습니다.그도 치료제와 육체적인 욕구에 대해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먼저 영적인 선물을 요구하고 그 다음으로 육적인 필요를 요구합니다.

-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온라인 체팅에서 어떤 영적 선물을 위해 기도하는지 공유해 주십시오.

이 꿈 직후 솔로몬은 두 창녀 (1 열왕 3:16-28)사이에서 판달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두 여성 모두 최근에 출산 했지만, 한 여성은 밤에 아들이 누워있을 때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다른 여자들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말하면서 다른 여자의 아이를 데리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살아 있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두 여인은 솔로몬 왕 앞에서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 그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는 “칼을 가져와라...살아 있는 소년을 둘로 나눈 다음 ; 한 [어머니]에게 반을 주고, 다른 한 쪽에 반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머니는 “주님, 제발 살아 있는 소년을 그녀에게 주십시오.. 그를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녀가 어머니다.”고 말하였습니다.
- 솔로몬은 자신이 요청한 것, 백성을 다스리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올 여름, 그가 한 것을 해 봅시다: 1)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2)당신의 상황을 고려하십시오; 3)최고의 선물을 부탁드립니다! 이 세가지 행동을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COVID-19 시기에도 복음화를 위해 열심이신 모든 사제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제를 위한 기도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사제들이 하는 모든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